

한화, 지역사회 복지관 지원

한화그룹이 지역사회 복지관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.

한화그룹은 9월22일 장교동 한화빌딩 21층 컨퍼런스룸에서 김연배 사회봉사단장(부회장) 및 배윤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을 비롯한 21개 복지관 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<지역사회복지관 네트워크 강화사업> 협약식을 가졌다.



공모를 통해 전국에서 선정한 21개 지역사회복지관에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1년간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총 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.

한화그룹은 보다 체계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2007년 10월 한화사회봉사단을 창단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.

직원들이 기부한 액수만큼 기업도 함께 기부하는 <매칭그랜트제도>와 전 직원들의 자원봉사를 바탕으로 하는 <참여형 사회공헌 제도>등 독특한 사회공헌시스템으로 복지단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9/09/23>